

## Press release (Korean)

### 보도자료 (한국어)

#### ASEAN+3 지역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며 금년중 5.2% 성장할 전망

#### *역내 회원국들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되 금융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2017년 5월 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중 ASEAN+3 지역 경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가운데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MRO는 올해부터 매년 발간되는 역내 거시경제 감시보고서인 'ASEAN+3 지역 경제전망(AREO,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을 통해 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홍콩 포함)·일본의 경제전망 및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였음. 아울러 금번 창간호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간의 ASEAN+3 지역 경제상황 변화에 관한 테마 연구분석도 함께 수록하였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역내 최대 회원국인 중국 및 일본 경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신흥시장국에 해당하는 한국, ASEAN-5\* 및 베트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ASEAN 내 개발도상국들은 역내 통합에 따른 수혜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AMR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Hoe Ee Khor 박사는 “ASEAN+3 지역의 탄력적인 경기회복세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을 감안할 때 역내 회원국들은 목표가 뚜렷한(targeted) 거시건전성 정책과 지속적인 구조개혁 등을 포괄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되 금융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동 보고서는 금년중 역내 경제성장 모멘텀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경제성장은 국내 수요부문이 계속 주도할 것으로 보이나, 각 회원국들은 역내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인플레이션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은 향후 지역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통화·재정정책 여력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로 축소되었음. 외환보유액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한 자본유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얻은 교훈에 관하여 분석하였음. 아시아 금융 위기는 ASEAN+3 회원국들로 하여금 추후 경제성장 및 지역 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정

책임국이 위기관리 및 대응방안에 관한 시각을 갖게 한 획기적인 사건(landmark event)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특히 동 위기를 계기로 역내 회원국들은 거시경제 감시기능 제고 및 역내 금융안전망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되었음.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첫 10년간, 위기 발생 국가들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자본 유입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그 결과 이들 국가들은 충격 흡수능력과 경제성장 발판을 다시 구축하기 위하여 보다 신축적인 환율체제로의 전환, 재정 긴축, 기업·금융부문 개혁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가시적인 정책 조정을 단행하였음.

이러한 정책 조정 및 개혁조치의 성과들이 그 다음 10년간에 걸쳐 나타나면서 회원국 경제 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여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음. 또한 회원국들은 무역·FDI·자본이동 개방도를 유지함에 따라 역내 통합 확대, 중국경제 부상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편입 증대 등의 혜택을 꾸준히 누릴 수 있었음. 역내 금융자금 이동도 증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역내 주요 대출자 및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입된 글로벌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재조정(rebalancing)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에 대한 잠재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였음.

2017년 들어서 ASEAN+3 지역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등 새로운 환경을 맞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름. 이에 동 보고서는 잠재적인 대외충격 및 파급효과(spillovers)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응해서는 인프라 투자수요에 대한 자원 확보,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단행해야 함.

Khor 박사는 “회원국들은 국내 정책체계 및 충격 흡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ASEAN+3 지역 금융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외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 **AMRO 소개:**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홍콩 포함)·일본으로 구성된 ASEAN+3 지역의 거시경제 및 금융안전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역내 국제금융기구임. AMRO의 주요 책무로는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실행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함

#### **문의처:**

Huong Lan Vu (Ms.), Public Relations Officer, AMRO

Email: [vu.lanhuong@amro-asia.org](mailto:vu.lanhuong@amro-asia.org), Mobile: +65 88763598, DID: +65 63239885

Website: [www.amro-asia.org](http://www.amro-asia.org)